

강연초록 — 노동법 개정의 향후전망

노동운동발전과 노동법 개악의 '아이러니'

노동부는 지난 8월 24일 각계 각층을 유언하여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발표했다. 노동부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헌재에서는 '노동법개정'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할 주체로 강행규(법학·법학)교수의 권한이 있었다.

본지에서는 현재 노동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고인해 보고자 강연의 초록을 실는다. (편집자 주)



노동 탄압법으로 개악 거듭한 노동법 노동자의 정확한 인식, 개정의 첫걸음

1953년 제정된 이후 개악으로 전후반경이었던 노동법. 노동법의 개악과정은 역대군사정권에 의해 지체되었던 노동운동의 탄압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박정희정권 때 2차례의 개정과 전후반경이었던 노동법. 노동법의 개악과정은 역대군사정권에 의해 지체되었던 노동운동의 탄압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강행규 교수는 현재 노동법제도의 문제점으로 ▲87년 이후를 제외하고 공직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된 적이 한 번도 없고 ▲노동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존재하지 않고 ▲헌법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구 제정된 노동법은 당시 노동운동에서 독소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면서 ▲공무원과 교사의 단체결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

(노동기준법 제33조)은 헌법의 기본이념과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고 ▲독수노조설립금지(노동조합법 제325조) 조항은 각 기업의 근로자들의 자발성에 맡기는 쪽으로 개정해야 바람직하며 ▲제3차기업법규(노동법 제122조)는 법의 형평성의 문제로 봐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고 ▲노조의 정치활동금지(노동법 제123조)는 노조의 활동을 경제활동에만 머무르게 하여 노조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시키는 행위이

고 ▲공익사업의 범위와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제정(노동운동법 제4조와 제30조)은 노조의 의사수렴을 부수한 조항이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인제노동부장관도 그 폐지를 약속했던 제3차기업법규 개정의 경우 제5공화국의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외국기업'이라는 표현이 없는 데다가 생동적 화성이라는 법칙 근거가 되기도 했다.

또한 작게인나 단체의 사회적 욕구가 정치과정을 통해 법으로 정착이 된다고 볼 때 노동자의 정치적 참여권은 문제의식과 관련이 깊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유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다. 노동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 그것이 개정을 위한 출발점이다. (정명기 기자)

문화재와 문화수준

물리적이고 물질적이며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 고문피해 고발센터의 개설과 활동

"고문에 의한 인권유린 없는 그날 위해..."

고문 피해자 고발 센터(대표 김경남 목사)가 문을 열었다. 종로5가 기독교회관 708호에 위치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는 시국사범 및 일반사범들의 고문 피해사례를 지닌날 말부터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사례들은 분류하여 충분한 물증이 확보되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6층 인권피해 고발센터로 옮겨 3월 활동을 시작했으나 고문에 의한 피해사례가 접수된다고 따라 고문피해 접수 센터로 전환

기 위해서서 확실한 문증이 가장 필요한데 피해자들이 당한 5-6공때의 고문문증이 많이 지워졌기 때문에 고발센터에서는

6공인권피해 고발센터로 시작 고문의 심각성 인식 확대에 노력

했다. 고발센터가 문을 연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단 세 건만 접수된 신고가 부진했지만 지난 19일 신고로 한겨레신문에 기사가 나온 후 신고가 활발해져서 우연한 통문 접수문도 몇 건 들어왔다.

고문피해자가 재판에 승소하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 가장 확실한 증거들은 의사의 진단서인데, 한국전체 같은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를 갖추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거의 폐인이 되었고, 전치석에도 92년 조전노동당 사건으로 안기부에 49시간 불발감공되어 전술을 강요당하면서 그에 대한 집단 폭행으로 목숨이 위기에 빠지는 등 전치 3주 전치금을 받았으며 우울증과 폐의염의 정신질환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거의 폐인이 되었고, 전치석에도 92년 조전노동당 사건으로 안기부에 49시간 불발감공되어 전술을 강요당하면서 그에 대한 집단 폭행으로 목숨이 위기에 빠지는 등 전치 3주 전치금을 받았으며 우울증과 폐의염의 정신질환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거의 폐인이 되었고, 전치석에도 92년 조전노동당 사건으로 안기부에 49시간 불발감공되어 전술을 강요당하면서 그에 대한 집단 폭행으로 목숨이 위기에 빠지는 등 전치 3주 전치금을 받았으며 우울증과 폐의염의 정신질환

그러나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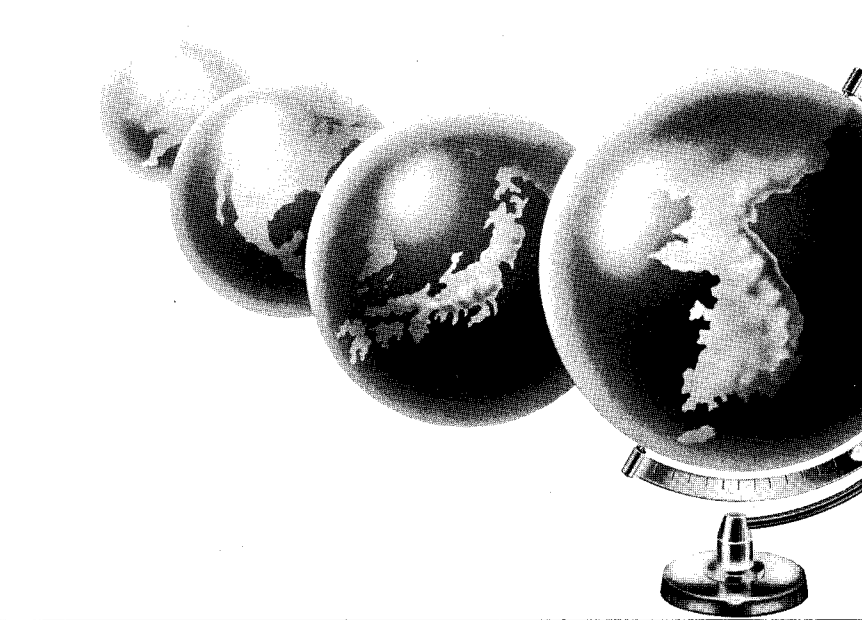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터져서 건에 떨어진 건에 떨어진 건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1989년 11월 박물관의 창립 90년 여를, 독립의 통일 과정이 문화재로 전제되고 있을 때, 터져서 건에 떨어진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삼성



技動說!

사동상은 지구가 태양의 힘에 의해 공전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지만, 정작 사구를 움직여주는 힘은 바로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킨지 100여년을 개척한 영국을 사람들은 '대영제국'이라 불렀고, 짧은 역사에도 풍부한 사구와 기술로 인간을 향해 개척해나가는 사람들은 '세계의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배전의 고도를 타고 있는 미국을 '세계의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21세기 — 대영제국 대영제국을 건너온 '세계사의 주역' 자리를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행복을 위한 첨단기술 — 휴먼테크"의 산실, 삼성전자는 바로 21세기의 주인공이 된 남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의무의 현장입니다. 기술의 힘으로 세계를 바꾸는 SAMSUNG 삼성전자